



<보훈문화상품 사진(사진의 태극기는 김구 선생의 서명문 태극기)>

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 두 번째 보훈문화상품 출시한다

- '경교장 우드 조립 키트', '나의 소원 미니북 키링', '김구 돋보기 안경' 등 11종 21일(금) 출시
- 지난 6월(3종)에 이어 두 번째 출시, 11월엔 고품격 전통공예 상품 출시 예정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보훈문화상품(굿즈) 11종을 21일(금)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보훈문화상품은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슬로건인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역사적 공간, 주요 유물과 휘호, 그리고 평생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뜻을 현대적인 디자인과 상품으로 재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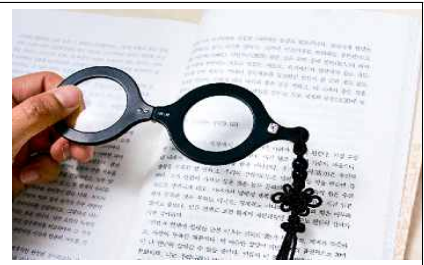
대표 상품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집무실이자 역사적 순간을 간직한 경교장을 입체적으로 조립해 볼 수 있는 '경교장 우드 조립 키트'를 비롯해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을 발췌해 휴대와 소장이 편리한 미니북 형태로 제작한 '나의 소원 미니북 키링',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상징적인 모습에서 착안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더한 '김구 돋보기 안경' 등이 있다.



경교장 우드 조립 키트



나의 소원 미니북 키링



백범 김구 돋보기 안경

이와 함께 「백범일지」 주요 구절과 김구 선생의 서명문 태극기를 활용한 노트와 북커버, 미니 에코백, 연필 세트, 금속 책갈피 등 문구 및 일상 잡화류도 선보인다. 이는 상품의 종류와 활용도를 넓혀 다양한 연령층이 일상에서 김구 선생의 삶과 후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보훈문화상품은 자폐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와 협업, 소속 디자이너의 **따뜻한 시선으로 재해석한 일러스트**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11종의 김구 선생 관련 보훈 문화상품은 21일 (금)부터 온라인 쇼핑몰 K-Heritage Store(khstore.or.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경복궁, 덕수궁, 한국의 집, 국회박물관 문화상품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내 전통문화센터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11월에는 무형유산 전승자와 협업하여 김구 선생의 정신을 보다 깊이 있게 담아낸 **고품격 문화상품**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출시되는 보훈문화상품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전시실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의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보훈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이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보훈문화상품 사진

담당 부서	보훈문화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시은 (044-202-5523)
	보훈문화콘텐츠과	담당자	사무관	주예지 (044-202-5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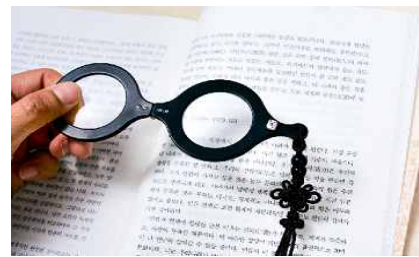
보훈문화상품 사진(사진의 태극기는 김구 선생의 서명문 태극기)



경교장 우드 조립 키트



나의 소원 미니북 키링



백범 김구 돋보기 안경



백범 김구 노트



백범 김구 마스크테이프



백범 김구 연필세트